東大新聞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㉑8131~9 本社直通㉑8577

每週火曜日發行

玧範 赫 嫩相 徐韓 宋武 京 太

發行人 編輯人 主幹 編輯部長

學術活動 활발히 進行

總學生會 學藝部·女學生會 등

디오니소스祭 開催

제3회 美術展·敎養講座등도

○……敎養있는 大學生, 넓은 知識을 가진 大學人像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이 가을學期들어 점……○

○……차 高潮되어 가고 있다. 학생들은 11월初 개최하였으며, 여학생회에서는 第1回「디오니소스」祭를 갖는다. 佛敎大 哲學硏究會는 한편 불교미술학과에서는 ……○

○……괴로 열릴 예정이다. 주요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1부=學術發表會 內容은 다음과 같다.

▲「디오니소스」神話의 哲學考察=金銘貞(哲學科 교수)▲「싸르트르」思想은 왜 삶이 있는가=金洞孝(文二·三)▲現代의 老子的 人生觀=金文坤(哲·四)▲「一를래식키반」연주회, 「싱·어롱」▲제3부=「哲學徒의 饗宴(元後盤 친선도모)

○……의 名士들 모시고 講演會를 갖는다. 佛敎大 哲學硏究會는 第1回「디오니소스」祭를……○

○……학정, 愛知에 넘친 대학입구현에 활발한 활동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불교미술학과에서는 ……○

○……3회 作品展에 注力하고 있다.

哲學會

敎授·學生學術발표

哲學會에서는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工大시청각교육실에서 第1回「디오니소스祭」를 가진 學究중토조「悅熱을 가진 學究중토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해 처음 열리게 되는「디오니소스」祭에는 哲學徒들이 「디오니소스」神話의 철학적 고찰(金銘貞·佛大敎授)、「싸르트르思想은 왜 삶이있나?」(金炯孝·韓國哲學會 상임간사)등의 강연과 1、2、3부로 나눈 다양한 프로그램이 進行되는데 2부는음악순서이다. 총학생회 학예부의 후원으로 열리게되는「디오니소스」祭는 앞으로 계속되는 「싱·어롱」(김·포·사)▲제3부=「그리스·어롱」

女學生會

金曜敎養講座도

女學生會(會長=함연수·英文3)에서는 오는26日부터 每週 금요일마다 학생회관 2층 여학생휴게실에서 金曜敎養講座를 갖게된다.

大學生活을 보다 충실히 가자고 예절바른 女學生像을 가다듬기위해 실시되는 이번 敎養講座의 강사는 每週 바뀌게 되는데 여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講座 제목및 講師 (10月및 11月)▲10월26일 오후3시=大學生의 禮節(오청경·금란女高교장)▲11월6일 오후3시=여성의 지위와 사회진출(이숙종·國會議員)▲11월12일 오후3시=연애와 결혼(윤서석·中大사범대敎授)

校內學力競試大會

총학생회 학예부(부장·권호선 政外3)에서는 오는 11월10일 校內學力競試를 6일 오후3시=여성의 지위와 사회진출(이숙종·國會議員)▲11월12일 오후3시=연애와 결혼(윤서석·中大사범대敎授)

吳法眼副總長

吳法眼 副總長 渡美

「시라큐스」大學 硏究敎授로

본교 부총장 吳法眼스님 (大휴원회장)은 지난19일 오후6시 美 드헤드 박사의 초청으로渡美 시라큐스大學 宗敎學 硏究敎授로 영전되어 3월말경 귀국할예정이다.

吳副總長은 명년 1학기 동안 연구교수로 활동하게될 吳副總長은 명년 귀국할예정이다.

이사장, 徐燉珏총장을 비롯한 校內外人士와 學生대표 환영을 떠났다. 받으며 金浦공항을 떠났다. 吳法眼스님은 韓國佛敎文化를 널리 소개하고 韓美中 學術交流를 증진시키는 데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그 矛盾의 尖銳化가 전쟁을 유발한다고 하면 그만 일터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학에서는 그렇다면 아시아의 諸民族國家가 어째서 후진국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그 역사를 분석,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각 역사를 추진해온 要因과 지는 法則性을 구명해 내야야 하는 역사를 보는 東洋史學者의 태도에는 두 相異한 입각점을 지닌다. 東洋의 歷史, 社會가 停滯的이라는 경우와 그 반대로 主體的 발전을 겪어왔다는 주장이다. 前者의 입장은 대체로 西歐의 東洋學者들보서 列强의 對아시아 제국주의적 침략을 合理化시키고 정당화시키려는데 (意圖的이거나 非의도적이거나 간에) 있는데 대하여 후자는대체로 東洋사자신의 생존권과의 침탈의 부당성을 闡明,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 두相異한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 정당성은 물론, 後者의 편이다.

前者의 입장을 대표하는 學者로 유명한「막스·웨버」를들수 있는데 그의 社會學的업적은 워낙 굉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의 아시아사회의 停滯性理論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그는 西歐 근대사회를 성명함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티즘」의윤리를資本主義의정신으로 보아 그것을 社會成立의 결정적 要因이라 규정하는 한편 新敎이외의 一切의 宗敎는 非근대적인 것으로 못박았다. 다시말하면 新宗敎만이 資本主義의 近代精神을 가졌기 때문에 西歐에서만 근대사회가 성립할수 있었는데 반면 儒敎, 回敎, 불교, 힌두교, 도교등은 그러한 合理的 市民정신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停滯의역사를 면할수 없었던다는데 東西의 宗敎를 동하여 아시아의 停滯性을 입증하여 이러한 理論의 論理的귀결은 停滯한 東洋社會에 進步的 西歐의 資本主義家가 고난의 歷程을 겪고 있지만八병 優位는 西歐優位, 東洋劣等論이된다. 「웨버」이외에도 위톨공 테슈큐」、「아담·스미스」에서 「헤·겐」「위트포·겐」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이 입장에 선다. (그렇다고 하여 볼테르등의 中國社會觀讚揚者들 공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여하튼 이 停滯性理論은 역시<停滯의 아시아>의 一員인 日本이 明治維新을 통해 資本主義로 武裝하자 自己 만은 西歐의 역사가 걸었던 정상적發展段階를 걸었다고 주장하면서 中國大陸과 韓半島는 主體的으로 극복할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의 植民地가 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皇國史觀을 政略的으로 확립하여 帝國主義侵略을 合理化시키는 理論的 근거를 삼았던 것이다. 國史學界에서나 日本의 일부 양심적 學者들의 의하여 皇國史觀의 虛構性이 폭로되고 있거니와 그 侵略計畫 아시아社會의 停滯性理論의 神話 또한 그 발판을 잃어 간다. 그것은 學界의 줄기찬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려니와 역사현상이 직접 雄辯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大部分의 아시아의 民族國家가 고난의 歷程을 겪고 있지만八병 식민지, 반식민지로 전락하므로서 그 主體的 역사발전이 저해당하는 수난의 길을 걸어야만 하였으며, 특히 2次大戰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대국의 각성이나 「이데올로기」적대립이 대하여 戰爭을 아시아지역의 療養特許인양 頻發하고 있다. 極惡의 전쟁이 아시아의 전대륙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하여 아시아의 대부분은 後進國이다. 後進國에서는 여러 모순을 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矛盾의 尖銳化가 전쟁을 유발한다고 하면 그만 일터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학에서는 그렇다면 아시아의 諸民族國家가 어째서 후진국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그 역사를 분석,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각 역사를 추진해온 要因과 지는 法則性을 구명해 내야야 하는 역사를 보는 東洋史學者의 태도에는 두 相異한 입각점을 지닌다. 東洋의 歷史, 社會가 停滯的이라는 경우와 그 반대로 主體的 발전을 겪어왔다는 주장이다. 前者의 입장은 대체로 西歐의 東洋學者들보서 列强의 對아시아 제국주의적 침략을 合理化시키고 정당화시키려는데 (意圖的이

學界의 焦点

曺永祿 <史學科敎授>

東洋史觀의 主體性

停滯性理論은 重大誤謬

東洋史學은 그 대상이 지엽적으로는 漢文化圈、印度文化圈、이스람文化圈등으로 大別할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인류문화의 4大발상에서 격변하는 昨今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광범한데 비하여 대상이 이렇게 광범한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東洋史學界는 연구인원이 극소수인데다가 관심도 또한 우리나라의 관계의 密接度에 치우쳐 漢文化圈 특히 中國史에 국한된 형편을 면치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筆者의 연구도 中國史의 특정한 時期와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터이므로 學界의 연구동향을 綜括하여 그 초점을 부각시킨다는것은 논력밖의 일이다. 여기서는 다만 筆者나름의 所見의 일단을 피력하는데 그치려한다.

○ ○ ○

近代 아시아는 西勢東漸 즉 산업혁명으로 무장한 西歐列强의 帝國主義的 침략에 의하여 식민지, 반식민지화하므로서 그 主體的 역사발전이 저해당하는 수난의 길을 걸어야만 하였으며, 특히 2次大戰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대국의 각성이나 「이데올로기」적대립이 대하여 戰爭을 아시아지역의 療養特許인양 頻發하고 있다. 極惡의 전쟁이 아시아의 전대륙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하여 아시아의 대부분은 後進國이다. 後進國에서는 여러 후자는대체로 東洋사자신의 생존권과의 침탈의 부당성을 闡明,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 두相異한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 정당성은 물론, 後者의 편이다.

前者의 입장을 대표하는 學者로 유명한「막스·웨버」를들수 있는데 그의 社會學的업적은 워낙 굉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의 아시아사회의 停滯性理論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그는 西歐 근대사회를 성명함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티즘」의윤리를資本主義의정신으로 보아 그것을 社會成立의 결정적 要因이라 규정하는 한편 新敎이외의 一切의 宗敎는 非근대적인 것으로 못박았다. 다시말하면 新宗敎만이 資本主義의 近代精神을 가졌기 때문에 西歐에서만 근대사회가 성립할수 있었는데 반면 儒敎, 回敎, 불교, 힌두교, 도교등은 그러한 合理的 市民정신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停滯의역사를 면할수 없었던다는데 東西의 宗敎를 동하여 아시아의 停滯性을 입증하여 이러한 理論의 論理的귀결은 停滯한 東洋社會에 進步的 西歐의 資本主義家가 고난의 歷程을 겪고 있지만八병 優位는 西歐優位, 東洋劣等論이된다. 「웨버」이외에도 위톨공 테슈큐」、「아담·스미스」에서 「헤·겐」「위트포·겐」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이 입장에 선다. (그렇다고 하여 볼테르등의 中國社會觀讚揚者들 공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여하튼 이 停滯性理論은 역시<停滯의 아시아>의 一員인 日本이 明治維新을 통해 資本主義로 武裝하자 自己 만은 西歐의 역사가 걸었던 정상적發展段階를 걸었다고 주장하면서 中國大陸과 韓半島는 主體的으로 극복할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의 植民地가 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皇國史觀을 政略的으로 확립하여 帝國主義侵略을 合理化시키는 理論的 근거를 삼았던 것이다. 國史學界에서나 日本의 일부 양심적 學者들의 의하여 皇國史觀의 虛構性이 폭로되고 있거니와 그 侵略計畫 아시아社會의 停滯性理論의 神話 또한 그 발판을 잃어 간다. 그것은 學界의 줄기찬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려니와 역사현상이 직접 雄辯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大部分의 아시아의 民族國家가 고난의 歷程을 겪고 있지만八병 식민지, 반식민지로 전락하므로서 그 主體的 역사발전이 저해당하는 수난의 길을 걸어야만 하였으며, 특히 2次大戰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대국의 각성이나 「이데올로기」적대립이 대하여 戰爭을 아시아지역의 療養特許인양 頻發하고 있다. 極惡의 전쟁이 아시아의 전대륙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하여 아시아의 대부분은 後進國이다. 後進國에서는 여

第11回學術賞入賞者發表

本社 第11回學術賞은 지난 9月末까지 作品을 募集, 各分野別 個別審査및 綜合審査를 거쳐 入賞者 9名을 다음과 같이 決定, 發表합니다.

◇人文社會科學分野

▲本 賞=申鉉敎 (文理大國文科4年) 「說話속에 나타난 龍의 意味」

▲奬勵賞=延基榮 (法政大法學科3年) 「都市計劃에의한 公用收用의 諸問題」

▲奬勵賞=康東均 (佛敎大印哲科4年) 「佛敎의 空觀思想考察」

▲奬勵賞=李 萬 (佛敎大佛敎科4年) 「眞定師考著雙善說話考」

◇創作文學分野

▲本 賞=戲曲: 金哲鎭 (文理大演映科4年) 「魚缸밖의 금붕어」

▲奬勵賞=小說: 朴男濬 (文理大國文科3年) 「罷場」

▲奬勵賞=詩: 張賢淑 (文理大國文科3年) 「作業①」外

▲奬勵賞=詩: 李明柱 (文理大國文科4年) 「남은 여름」外

▲奬勵賞=詩: 尹順根 (文理大英文科3年) 「5月, 그리고 어머니」外

◇自然科學分野=해당作 없음

◇審査委員: 人文社會科學分野=趙演鉉 韓祖範 李載昌 元義範 創作文學分野=徐廷柱 吳永壽 吳學榮

※入賞者全員은 10月29日(月) 11時까지 本社로 集合할것

1973年 10月 23日

東大新聞社

東國奬學生 發表

오택원君등 34名에 지급

학생처는 73학년도 제2학기 東國奬學生선발시험결격자 34명을 15일 發表하였다. 이번에 지급될 장학생은 73학년도 교양부 4명, 2학년 13명, 3학년 8명, 4학년 9명등인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양학부=오택원(국문1) 채일문(영문1) 이석부(경제1) 이상봉(국교1)

▲2학년=김종재(철2) 김정진(농2) 김희재(철2) 김춘현(법2) 최계숙(식광2) 노명환(토목2) 이관용(전산2) 이대노(영문2) 윤석성(국문2) 김인숙(사교2) 한성철(언영2) 박명원(건축2)

▲3학년=김인숙(수교3) 박명주(경행3) 강성노(정외3) 김출국(경제3) 채부병(무역3) 황정식(사3) 정기복(경영3) 김봉학(고분자3)

▲4학년=전제권(화학4) 한혜경(영문4) 권승호(전기4) 조성일(고분4) 신중현(정치4) 전유철(경경4) 박차훈(행정4) 송기원(무역4) 김주현(경영4)

◇23日 교풍정화캠페인에 나선總學生會간부들

校風정화運動도

"내가곧 大學의 主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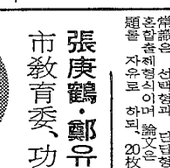
總學生會간부 캠페인벌려

총학생회봉사부(부장=송동훈)는 22일~27일까지를 교풍정화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캠페인을 벌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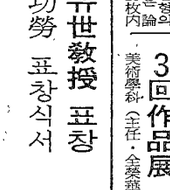
"내가 곧 학교의 주인이라는 主體精神을 갖자는 客의 입장에서 공평 다년간 거의 잊어버려 왔던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이번 교풍정화운동에 봉사부에서는 全東國人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거행된 표창식에는 특별공로표창, 연공표창및 교직단체표창등의 시상이 있었는데 本校 투교수가 받은 연공표창은 서음식 교육회 회원으로 초등·중등교직에 동상 25년 근무했거나 더학에 대상이 통산 25년이상 근무한자가 연공표창을 받은 張庚鶴박사는 41년 日本 京都帝大法學部를 졸업하고 46년 이후 東亞大、延大、漢陽大 敎授를 역임하고 本校에는 62년부터 근무했으며 鄭瑜世(師大體育科) 敎授는 43년 日本體育專門學校를 졸업하고 경신中學校 교원으로 敎職을 출발 62년부터 本校 體育科敎授로 재직해 왔는데 60년에는 녹조소성훈장을 받은바있다.

이번 21회 敎育공로자 포창식에는 특별공로표창에 6명, 연공표창 85명, 교직단체표창 7個校였다.



張庚鶴博士



鄭瑜世敎授

張庚鶴·鄭유世敎授 표창

市敎育委, 功勞 표창식서

서울市 敎育공로자 표창식」이 지난8일 삼일당에서 거행되었는데 이자리에서 本校 法政大學長 張庚鶴博士와 師大 鄭瑜世敎授가 영전표창을 받았다.

佛敎美術科

3回作品展

美術學科(主任·金學燕)에서는 오는 11월初에있을 제3회 作品展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佛敎美術學科는 그동안 學美展과 佛敎美展등에 出品하여 좋은 성적을 올린바있어 이번 作品展을 위해서 科 全員이 作品製作에 전력을 기울이고있다.

또한 展示會를 위해 美術學科에서는 講師 마련하고있는데 지난 하기방학때부터 實技室을 개방하여 佛像、書畫、彫刻 工藝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경지선 학교의 대외적인 P·R、강연회, 실표지등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현만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運動選手 위안의밤

총학생회주최로 盛況

총學生會에서는 지난 12일(金) 학생회관 6층식당에서 「운동선수 위안의밤」을 개최했다.

徐敎珏總長, 吳法眼副總長등 비롯 各 학처장및 운동선수, 코치, 학생회 간부등 1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운동선수 위안의밤」은 일시적으로 침체된 본교 운동부의 사기함양을 위해 개최된것이다.

이번행사로 마련된 「운동선수 위안의 밤」은 학교 전환점으로서 크게 환영을 받았는데 이자리에서 各운동부別로 전의문을 채택, 徐총장에게 전달했다.

敎授動靜

▲朱宗祖 (農大農經科主任교수)=한국農業經濟學會 理事인 朱교수는 오는 11월18일(日) 오전10시부터 同學會주최로 高大學生會館에서 열리는 食糧문제 토론회에서 「食糧가격유동정책」의 司會를 하게 되었다.

▲金昌謙(工大·공과교수)=영양식량학회의 초청으로 11월8일부터 일주일동안 한국전력시찰에 관한 강연을 하기위해 도일하게 되는데 이번 강연의 최대 관심사는 「김치」에 대한 견이라고 한다.

▲徐景洙(佛大·印哲科)=敎授는 지난19일, 成大에서 열린 韓國宗敎學會주최, 第15回 月例發表會에서 「佛敎에 있어서의 輪廻」란 主題를 發表했다.

書道會員募集

F·004로

東大書道會(지도·배길기·이병주교수)가 지난 9월 말께 회원모집등을 위해 만반을 기하고있다.

吳法眼부총장의 주선아래 宣柱善, 金敬照군등 10여명이 뜻을 모아 교양학부지학실(F·004)에 書藝를 마련, 창립을 앞두고 全校生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중이다.

연락처=교양학부장실 및 교양학부지학실(F·004)

辯論部忠武旗차지

團體, 個人部특등

본교 총학생회 변론부 곽희문(정외4)、송영기(문2)、김성수(진국1)군이 여수변론심판지회가 주최한 제10회 충무기쟁탈 전국남녀웅변대회에서 각각개인부, 단체부에서 전체특등을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장호 67명이 자웅을 겨루었으나 本校가 각부에서 전체특등의 영예를 차지한것이다.

시골정로

오늘의 韓國을 사는 知識人의 週刊誌!

■『서울평론』은 우리의 歷史를 바로보는 눈 입니다.
民族意識의 脈絡을 찾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잇는 思想과 思考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서울평론』은 바른 文化批評을 꾀합니다.
精神文化, 生活文化의 實像·虛像을 파헤치는 正論의 風土를 造成함으로써 批評하고 創造하는 知識人의 論壇이 될것입니다.

■『서울평론』은 知識産業時代의 索引입니다.
언제나 皮相的으로만 받아들여진 國內外 情報를 보다 깊게, 보다 正確하게 整理하는「스크랩」입니다.

11월4일 創刊

서울신문社

今週一言

饑爲大病
行爲最苦
己諦知此
泥洹最安

굶주림은 가장큰 병이요 行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만일 이것을 분명히 알면 가장 편안한 열반이 있다.

<法句經>

社說

大學體育의 姿勢

〈교양학부장·文博〉

가을. 한 해의 工夫를 마무리하는가 하면, 16년간 꿈꾸어온 總決算을 위한 就職試驗으로 어수선한 때이다. 同時에 게기로 年中의 마지막 대결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때이기도 하다. 이제부터의 試合은 업반 學生을 제외하고 明年을 대비해서 陣容을 가다듬게 될 것이다.

今年 가을 「씨-즌」에 접어들면서 太校 各運動部의 전적이 부진하자 그 타개책을 模索하기 위하여 學校當局의 실무책임자와 總學生會, 그리고 체육각부의 學生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여기서 얻어진 一種의 結論과 같은 해기로는 ①종부한 豫算과 ②巨物級선수의 적극적인 「스카웃」, 그리고 ③學校當局의 성의와 關心傾注등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세째의 學校當局의 誠意와 관심경주라는 것은 지금 까지 학교당국에서 誠意가 없었다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成果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種目을 育成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方法은 가장 가능성이 많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스카웃」의 問題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運動選手들의 「스카웃」의 樣相은 불행하게도 金錢이 가장 큰 作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實業團의 경우일지라도 「아마추어」選手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金錢이作用한다는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가능성의 세계는 그 야말로 絶對不知의 世界인 것이다. 그것이 황홀한 도원경이 될지 可怨할 不毛의 사막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 밑에도 그 가능성을 그 絶對未知의 世界를 향해 쉬임없이 나아가야하는 불안속에 참 삶이 있고 밝은 인류의 미래가 약속된다는것은 「아이러니컬」한 하나의 逆說일지도 모른다.

未知의 세계를 향해서 나선 나그네에게서 「好奇心」을 빼버린다 거기에 남는 것은 물없이 권태로운 旅程뿐이 있겠는가. 永遠히 復活과 救援의 약속을 잃은 十字架의 밑에서 또 무엇이 남겠는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대학체육의 基本姿勢만을 固守한다면 優秀選手의 「스카웃」은 不可能해지고 그결과 戰績은不振을초래하는 심각한 問題라고하나할수없다.

이 問題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은 各大學의 指導者들이 一致團結하므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그 方法은 바로 「드래프트·시스템」을 여기에 적용하는 방법인 것이다. 高校를 졸업하는 選手가운데 大學進學希望者의 명단을 매기고 大學팀의 명칭 「下位팀」부터 배정하여 大學進學을 시킨다면 선수「스카웃」의 不美스러운 일도 없어지고 大學팀도 實力의 평준화를 가져와 더욱 불을뿜는 연습과 더불어 있게 될것이다. 물론 이方法은 選手個人의 大學選擇의 자유를 말살하는것이기는 하지만 大義名分을 위해서는 充分히 감수할 수있는 희생이라고 하지않을수없다.

이 方法을 大學體育의 그본자세를 지키면서 수준향상을 꾀할수있는 方法이므로 各大學의 體育指導者들은 이 방법이 관철될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야 할것이다.

대는 바야흐로 結實의 가을. 한 해의 工夫를 마무리하는가 하면, 16년간 꿈꾸어온 總決算을 위한 就職試驗으로 어수선한때이다. 同時에 게기로 年中의 마지막 대결이 화려하게 펼쳐지는때이기도 하다. 이제부터의 試合은 업반 學生을 제외하고 明年을 대비해서 陣容을 가다듬게 될 것이다.

今年 가을 「씨-즌」에 접어들면서 太校 各運動部의 전적이 부진하자 그 타개책을 模索하기 위하여 學校當局의 실무책임자와 總學生會, 그리고 체육각부의 學生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여기서 얻어진 一種의 結論과 같은 해기로는 ①종부한 豫算과 ②巨物級선수의적극적인 「스카웃」, 그리고 ③學校當局의 성의와 關心傾注등이었다고한다.

여기서 세째의 學校當局의 誠意와 관심경주라는 것은 지금 까지 학교당국에서 誠意가 없었다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成果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種目을 育成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方法은 가장 가능성이 많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스카웃」의 問題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運動選手들의 「스카웃」의 樣相은 불행하게도 金錢이 가장 큰 作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實業團의 경우일지라도 「아마추어」選手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金錢이作用한다는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가능성의 세계는 그 야말로 絶對不知의 世界인 것이다. 그것이 황홀한 도원경이 될지 可怨할 不毛의 사막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 밑에도 그 가능성을 그 絶對未知의 世界를 향해 쉬임없이 나아가야하는 불안속에 참 삶이 있고 밝은 인류의 미래가 약속된다는것은 「아이러니컬」한 하나의 逆說일지도 모른다.

未知의 세계를 향해서 나선 나그네에게서 「好奇心」을 빼버린다 거기에 남는 것은 물없이 권태로운 旅程뿐이 있겠는가. 永遠히 復活과 救援의 약속을 잃은 十字架의 밑에서 또 무엇이 남겠는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대학체육의 基本姿勢만을 固守한다면 優秀選手의 「스카웃」은 不可能해지고 그결과 戰績은不振을초래하는 심각한 問題라고하나할수없다.

이 問題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은 各大學의 指導者들이 一致團結하므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그 方法은 바로 「드래프트·시스템」을여기에 적용하는 방법인 것이다. 高校를 졸업하는 選手가운데 大學進學希望者의 명단을 매기고 大學팀의 명칭 「下位팀」부터 배정하여 大學進學을 시킨다면 선수「스카웃」의 不美스러운 일도 없어지고 大學팀도 實力의 평준화를 가져와 더욱 불을뿜는 연습과 더불어 있게 될것이다. 물론 이方法은 選手個人의 大學選擇의 자유를 말살하는것이기는 하지만 大義名分을 위해서는 充分히 감수할 수있는 희생이라고 하지않을수없다.

이 方法을 大學體育의 그본자세를 지키면서 수준향상을 꾀할수있는 方法이므로 各大學의 體育指導者들은 이 방법이 관철될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야 할것이다.

杜詩諺解卷十四影印을 中心으로

李丙疇 〈교양학부장·文博〉

發見이란 낱말의 매력

〈교양학부장·文博〉

缺帙은 卷一·二·四·十二뿐

卷十四는 15年前 紹介

〈一〉

慶州 고분에서 쏟아져 나온 千여점의 보물은 「發見」이란 이미지 조차 무색하게 內外의 紙誌를 울 북관 장식각의 樂善齋文庫에서 신발견이란후 면같은 학자의 농간으로 國文學界를 무식과 무지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았다. 만은 모르는 자가로 본다면 불명 新發見이다. 처음보는 제들야 눈이 몽그래질 일이다. 새삼 주착없는 유식의 수다와 무책임한 操觚의 붓끝이 밉고 민망스러워 오직 원망이 앞선다.

모르는 주제라면 숫제 구구로 있거나 그렇지않으면 寡攻에게 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남에게 물는것은 사뭇 수치요 남에게 넘기는것은 敗北로 알아 점잖이 아는 체하는 야로가 橫行 한다. 하는 文獻을 커녕 鳥習書조차 옹졸수 없는 涼學이 감히 번역을 하는가 하면 經典까지도 손욕대는 名의 이판이다 스스럼기 보다는 오싹 소름이 끼치는 사실이다. 그나 그 뿐인가. 자기의 손방을번연히 알면서도 그 알방스러워 함부로 容喙를일삼는데는 질색이다. 寡修에게 미는 美德이 그것은 아니다. 正道요 誤人이 아니다. 發見이란 낱말의매력에 홀리기에 앞서 不博을 공그름이 마땅 아쉽다.

〈二〉

워낙 「杜詩諺解」의 初刊本은 稀覯에 값한다. 古의 珍藏에 속한다. 문제의 이 卷十四는 진작 1959年 9월 당시 忠南大 학생이었던 趙參衍(現在 百濟中 敎師) 씨가 그의 外家인 忠南扶餘郡장암면사산리 具信會씨 벽장에서 발굴 하여 비로소 學界에 소개됐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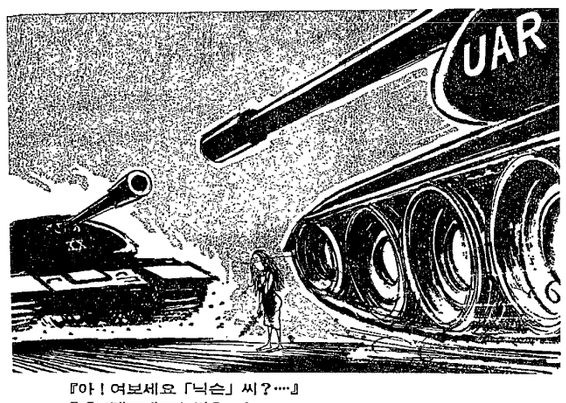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杜詩諺解」의 初刊 卷十四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떠들썩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기사이고 한심스럽기 짝없는 것이다. 그렇지 이따금 저지르는 엉뚱한 誤報는 심심치 않을 만큼 눈살을 찌푸렸다. 버젓한 轉載物가 新發見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서에 널리 소개된 「杜詩諺解」의 初刊 卷十四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떠들썩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기사이고 한심스럽기 짝없는 것이다. 그렇지 이따금 저지르는 엉뚱한 誤報는 심심치 않을 만큼 눈살을 찌푸렸다. 버젓한 轉載物가 新發見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서에 널리 소개된 「杜詩諺解」의 初刊本은 稀覯에 값한다. 古의 珍藏에 속한다. 문제의 이 卷十四는 진작 1959年 9월 당시 忠南大 학생이었던 趙參衍(現在 百濟中 敎師) 씨가 그의 外家인 忠南扶餘郡장암면사산리 具信會씨 벽장에서 발굴 하여 비로소 學界에 소개됐던 것이다.

岳陽樓·登樓·野望·暗季 北海宴歷下亭·江亭 등이 도사려 있어 매우 옹골차다. 다만 可惜한 바는 마지막張이 落張되었음이다.

그러나 겨우 1行만이 떨어져 나갔을 그 重刻의 木板本에 비겨 넉넉히 짐작할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런데 한글학회에서 縮寫影印한 자료에 의하면 이 卷十四의 끝장은 손을 탄 점이 두드러지다. 此種의 책자들 다소 남루어본 경연에 속하면 앞部分이 그렇게 낡았다면 끝部分도 역시 그럼 것이 常例인데, 이卷 十四는 끝의 마지막장이 비교적 덜 낡아 의아한 느낌이 갈든다. 「한글」 一五二호에 실려진 忠南大 도수희 교수의 解題에 의하면 初刊과 重刊의 對板가 졸렬여 있어 斯學에 이바는 바 不渺하지만 原本의 사진이 보다 알뜰했으면 하는 욕심 간절하다.

〈三〉

끝으로 都下 日刊紙에 소개된 이 卷十四에 관한 記事를 검토해 보면 한 근학회의 제공인 듯한데 어째서 이卷十四가 「全25권중 缺帙된 8권중의 하나」인지 전혀 모르겠다.



『아! 여보세요 「닉슨」 씨?····』
『「브레즈네프」 씨?····』
『좀더 크게 말씀하세요!』
—지난10월22일자 「뉴스위크」 誌만평—

中東戰의 向方과 韓國

〈안보硏究所所長·行政大學院敎授〉

自立安保態勢에 小國存亡 强大國이 中小國戰爭 左右

〈一〉

지난 10월6일에 일어난 第4次 中東戰爭은 그동안 美國, 이스라엘및 蘇聯으로부터 각기 休戰案 또는 協商提議가 나왔다. 이러한 和平提議의 뒤에는 次大戰當時의 아프리카에서의 獨逸 탱크戰을 누가하는 機甲戰이 시나이半島와 시리아領內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戰爭이 加熱되어 감에 따라 石油가 武器도 武器化하고 北韓操縱士가 參戰하며, 美蘇兩大國의 作用이 증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狀況 展開는 우리로 하여금 中東戰을 彼岸의 불도만 생각할 수 없게 하는 要素라고 하겠다. 뒤집어 말하면 아랍과 이스라엘의 戰爭이 우리에게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 어떤 影響을 줄 것인가에 대한 關心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中東戰의 우리에 대한 영향을 각하려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戰爭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檢討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解決은 同戰爭을 일으켰던 아랍측과 그것을 지원하는 蘇聯의 立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아랍측의 戰爭目的과 蘇聯의 中東戰에 대한 態度 및 전개되고 있는 戰爭樣相등에 대한 檢討가 先行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二〉

中東에서 戰爭이 일어 나게 되는것은 歷史的 要素, 國際的 要素 現實的 要素등이 復合的으로 엮혀 나타 나기 때문이다. 歷史的으로 보면 제2차대전후인 1948년 5월 이스라엘이라는 國家가 成立되면부터 猶太民族과 아랍民族間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存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랍國家들의 태도와 서기70년 로마帝國의 지배하에서 국가를 뺏긴지 2,000년이 가까이 되어 그것을 「팔레스타인」지역에 再建하고 보존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간에는 氷炭不相容의 관계가 성립되었던것이다. 아랍과 이스라엘간에 그 후 일어난 모든 戰爭은 이것을 역사 배경이 깔려있고 그러기 때문에 戰爭을 常態化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國際權力作用이 中東에서의 戰爭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70年代에들어 오면서 强大國間에는 軍事的 安定(軍事緊張의 解消)을 이룩하였지만 이 安定의 바탕위에서는 中小國에 대한 影響力確保競爭이 그들사이에서 일어 나고 이 競爭過程에서 武器支援을 하게된다. 武器支援을 미끼로 大國은 中小國에 影響力을 가지려는 것이다. 超現代武器의 中小國으로의 擴散은 자연히 긴장의 擴散現象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中小國간의 戰爭이 일어 나게 마련이다. 中東에서의 戰爭도 美國의 影響圈속에 蘇聯이 影響圈을 개설하는 過程에서 아랍에 대한 무기의 過度支援을 하므로써 戰爭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두가지의 根源的인 要素가 작용하는 가운데 先制攻擊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아랍측은 換地利益 猶太人移住所閉鎖 石油武器化 6月에 보였던 蘇聯으로 부터의 支援確約 石油國의 油價引上에 대한 共同步調 등에 대한 美國의 恐怖등의 客觀的 狀況과 6個月間에 결친 戰爭準備 埃及內에서의 學生의 反政府 活動등의 主觀的 狀況下에서 아랍의 攻擊이 이루어진 것이다.

〈三〉

앞에 지적한 諸要素와 條件에의해서 이번의 戰爭이 일어 났다고 생각되지만 先制攻擊을 강행한 埃及의 이번 전쟁에서의 目的이 무엇인가를 살피므로서 전쟁의 將來 豫測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1948年 이스라엘이 建國할 당시의 아랍측의 戰爭目的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으나 이번의 경우는 67년 6월에 상실한 失地를 수복하려는데 있는 것 같다. 失地收復을 하려면 유리한 協商地를 차지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수에즈」東岸을 장악하고 「골반」高地를 확보하여야 했다. 67年以來로 占領地를 물려준 協商問題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直接協商(이方式을 아랍이 받아 들이면 아랍의 이스라엘 生存權認定이됨)을 주장하고 아랍측은 유엔의 仲裁案채택에 의한 協商은 蘇戰의 新銳武器에 의한 協商高地를 차지하여야했다.

第1段階目標가 協商高地를 차지하는것이라면 埃及은 이미 이 目標를 달성했고 나머지 第2段階의 目標인 失地回復을 위한 協商의길만이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랍의 목적달성전을 깨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은 戰勢를 만회하여 協商의 逆高地占有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앞으로의 수일간은 中東戰에 있어서 중요한 게기가 될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느 一方의 完全勝利는 있을수 없고 또 쌍방 전력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數週內에는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表面的, 數字的인 面에서는 아랍측의 戰力이 우세하지만 動員能力, 精神力, 戰略遂行能力, 技能등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앞서고 있다. 아랍의 여러나라가 참전하고는 있으나 시리아와 埃及을 제외하면 명목적 참전에서 나지 않으며 蘇聯의 支援도 크게 축소될수 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67년과는 달리 砂漠戰에서 중요시되는 制空掌握을 하지 못하므로서 初戰단계에서 많은 피해를입었다. 이러點들로 볼때 완전승리를 쟁취할수는 없을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있을수 없다. 따라서 戰線의 膠着化현상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휴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四〉

이번의 中東戰爭에서 우리는 몇가지 교훈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國際的인 平和共存이 오히려 中小國에서의 戰爭을 일으키게 한다는것이다. 兩大國은平和共存을 추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各己 自國의 利益을 위해서 各己 中小國을 지원하게 되어 中小國間의 戰爭이 일어 나는 패턴을 中東에서 뚜렷이 보았다는 것이다. 이 事實은 北韓이 蘇聯의 支援을받고 美國의 支援을 받는 韓半島 狀況에서도 언제나 戰爭要因은 潛在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점이라고 할수있다.

둘째는 强大國의 利害가 상충되는 곳에서의 戰爭에는 限界性이있다는 것이다. 强大國의 支援이 制限的이기 때문에 當국은 勝者도 敗者도 없는 終戰이 되고만다는 것이다. 第2次大戰後에 있었던 戰爭 (獨立戰除外)은 그렇게 해결되었음을 볼수 있다. 셋째는 小國이라고 하더라도 自立安保態勢를갖추면 強大國間의 支援을 받고는 있으나 敵國을 攻擊에서 一定期間 殘存할수있는 安保態勢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不過 數百萬의 人口가 敵國의 敵性國속에서도 存立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自主安保意識을 가장 重要한 戰力이 되고있다. 四强의 中央的位置에 있는 우리民族, 인제나 緊張의 위협속에 있는 우리 國家이 아닌수 없다.

빗째로 中東戰의 勃發로 아랍圈에서의 北韓의 地位가 好轉됐다는 事實이다.

지난 봄에 埃及으로 부터 北韓大使가 追放된 事實에 비추어 볼때 9월23일 埃及副統領의 平壤訪問(軍事支援要請이 있었을 것임)과 北韓操縱士의 參戰은 중대한 局面의 變化가 아닐수 없다.

이제 北韓의 아랍進出은 보다용이하게됐고 금번UN총회에서의 支持票增加가 가능하게 됨, 만약 이번의 유엔총회에서 아랍의 모든 票가 北韓支持로 됨 경우 北韓은 南北對話에 있어서도 柔軟性을 줄 것인가에 대한 關心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 대한 영향은 韓半島 判斷하면서 主體的으로 民族과 國家의 運命에 中東戰이 큰 作用要因이 됨을 뜻하는 것이다.

나섯째로 비록 親西方的인 國家가지도 行政民族主義앞에서는 反美行動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美國과 密着한 우리는 아랍 美國의 外交活動이 어렵게 될것이고 石油武器化에 따라 年間 6천萬톤의 原油價支拂을 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對美輸出中斷이 擴大될 경우에는 중대한 試練을 받을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는 國際情勢를 冷靜히 判斷하면서 主體的으로 民族과 國家의 運命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모든 狀況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閔丙天

好·奇·心

〈敎養學部 副敎授〉 金福善

大學閑話

개나리 봉오리 멕고 遊覽3千에 나선 나그네가 그 봉오리속에 「好奇心」을 꾸리지 않았다면 차라리 사랑방에 누워 낮잠이나 자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때의 古今이나 洋의 東西를 불문하고 人生의 本質程度는 항상 이러한 것이다. 따라서 호기심을 잃은 人生은 죽음의 근원이되고, 어느 경우에는 人生의 낭만이 더욱 강하여 기도하며 항상 삶에의强烈한 意志를 상징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소중한 재소이기도 한 것이다. 이럴때에 「잇순」가 뛰는 만큼 열정적인 행동하고 決斷하며 자기를 만들어감으로서 단순히 存在하지않고, 具體的으로 實存하는 主體를 산다는 말이기도 하다.

연습이나 관습, 在來的인 도덕이나 生活規範따위에 매달리면서 그 속에 용크리고 安住하는 것은 無事主義의 안일한 俗人의 「타락」일 수 있을 지라도 그것이 결코 악동하는 生命力을 불태우면서 새로운 自己를 창조해가는 實存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사르트르」는 꿈일없이 새로운 可能性을 향해서 자기를 내던지는 과정이 곧 참 삶이라고 했고 그 主體가 實存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가능성의 세계는 그야말로 絶對不知의 世界인 것이다. 그것이 황홀한 도원경이 될지 可怨할 不毛의 사막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그 絶對未知의 世界를 향해 쉬임없이 나아가야하는 불안속에 참 삶이 있고 밝은 인류의 미래가 약속된다는것은 「아이러니컬」한 하나의 逆說일지도 모른다.

未知의 세계를 향해서 나선 나그네에게서 「好奇心」을 빼버린다 거기에 남는 것은 물없이 권태로운 旅程뿐이 있겠는가. 永遠히 復活과 救援의 약속을 잃은 十字架의 밑에서 또 무엇이 남겠는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대학체육의 基本姿勢만을 固守한다면 優秀選手의 「스카웃」은 不可能해지고 그결과 戰績은不振을초래하는 심각한 問題라고하나할수없다.

이 問題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은 各大學의 指導者들이 一致團結하므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그 方法은 바로 「드래프트·시스템」을여기에 적용하는 방법인 것이다. 高校를 졸업하는 選手가운데 大學進學希望者의 명단을 매기고 大學팀의 명칭 「下位팀」부터 배정하여 大學進學을 시킨다면 선수「스카웃」의 不美스러운 일도 없어지고 大學팀도 實力의 평준화를 가져와 더욱 불을뿜는 연습과 더불어 있게 될것이다. 물론 이方法은 選手個人의 大學選擇의 자유를 말살하는것이기는 하지만 大義名分을 위해서는 充分히 감수할 수있는 희생이라고 하지않을수없다.

이 方法을 大學體育의 그본자세를 지키면서 수준향상을 꾀할수있는 方法이므로 各大學의 體育指導者들은 이 방법이 관철될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야 할것이다.

新刊
入門 日本語敎本
FBS 강사 李寅植 著
가장쉽고, 가장빠르게 정확한 日本語를 익히는 길—
새로 엮은 日本語 30日 完成—
A5判·半양장 값400원
●定評있는 放送敎材
오늘의 日本語시리즈(전5권)
李寅植著
① 초보 日本語 자습·入門
② 정확·풍부한 日本語 讀本
③ 기본·일상의 日本語 會話
④ 여행·쇼핑의 日本語 회화
⑤ 교육·한자·사전·읽기·漢字 日本語
FBS (극동1190KHZ) 放送中
강사: 이임식 박순현선생
시간: 아침 6시40, 11시30(재방)
비닐박스入/A6判/月賦可/2,700원
語學書는 平和出版社
100서울사서함中央局5066호
전체 서울 383번 ☎29-3473

就業에 關한 公告
本學生處에서는 卒業班學生의 就業對策에 參考하고자 아래와 같이 就業카-드를 받고 있아오니 卒業班의 申告를 바랍.
記
◇申告對象者: 卒業班學生으로서 이미 就業한者, 또는 就業希望者.
◇申告處: 各學科主任교수를 거쳐 學生處 또는 所屬大學長室로
※所定카-드는 學長 또는 主任敎授室에 있음
1973. 10. 20
學生處

□학우의 집□
Jeans Original Store
東大生特別割引!!
Blue Jeans
스커트·자켓트
Y샤츠
단체복·특수복
스카이랩 스카이랩 스카이랩 스카
SKYLAB SKYLAB SKYLAB
이랩 스카이랩 스카이랩 스카이랩
☆위치→淑明女大 正門앞

全國各書店 販賣中
새롭고 알찬 現代日語의 길잡이
標準 新日韓小辭典
큰사이스版 5만어휘수록 654面 값 1,200원
韓國外國語大學 大學院長 文學博士 鄭寅燮 監修
도서출판 文公社刊 ☎25-4464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가101의17(창신빌딩506)

美国人会話
日本語会話

개강. 11월 1일
TEL. 75-4933
①어학실험실완비
②각반정원 8명
③완전학습지도
(위치). 종로3가(단성사) 십자길에서2가 방향으로 50m 내려오면 〈유림빌딩 3층〉
国際外国語学院

갈월동 JSS일본어
수강생 모집 안내
우리 사회에는 일본어를 배울 필요가 날로 절실해지고있읍니다.
이에 본 학원에서는 유명한 사계의 권위자 이시며 정확한 東京일어를 구사하시는 재일교포 선생님을 모시고 철저한 개인지도에 임하고 있아오니 많이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반 편 성>
초급반, 중급반, 고급상, 고급하, 다이제스트반, 문예춘추반, 작문반, 회화반,
<본학원의 특징>
(가)일류 강사진
(나)철저한개인지도
(다)90분강의
<학 원 위치>
갈월동 파출소
←용산 서울역→
J.S.S일본어학원
민신생활상금호고
수송도빈고학동교
육교
TEL ㊷3305
(80번81번78번갈월동입석버스정유장앞)

東大行政大學院學生會
□人事말씀□
지난9月27日 本大學院세미나실에서 任員改選을 갖고 아래와같이 任員 선출을 했읍니다. 東國의 繁榮을위해 애써주시는 先輩또는 在學生 여러분의 熱과誠있는 협조를 바라면서 앞으로 總長님을 비롯한 敎授님 그리고 先輩諸賢들의 후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名譽會長 金炳始
會長 朴相鉉
副會長 金照明 尹蓮相 張斗宇
部長 次長
總務部 玄海天 朴鍾喆
企劃部 成山永 朴河植
涉外部 金容蓮 朴南一
學術部 文宗勳 洪秀直
佛敎硏究 昇鍾奉
部員: 金民熺 金平國 朴慶化 李相今 陳炳烈
運營委員 金東春 金順媛 金容世 裵大起 文相羽 朴洙鳳 朴壽福 宋熙萬 梁莫芝 王鳳均 尹福源 李明吉 李丙旭 李炳華 李哲東 田成權 崔璟煥 崔錫山 崔壽榮
監事 朴載斤 尹建秀 韓秉斗
1973年10月 日
行政大學院學生會

韓國隨筆文學史序說

崔範勳 <文理大講師>

1、수필의 表記문제

한때 漢字로 기록된 作品을 國文學의 범주에 넣느냐 안 넣느냐하는 문제로 國文學界간의 의견이 분분한 일이 있었다。그러나 이 小考에서는 통설에 따라 비록 漢字로 表記되었더라도 한국사람이 한국의 生活感情을 표현한 것이라면 모두 國文學의 범주에 소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筆者의 평소 所見이다。「한국사람이 한국인의 생활감정을 한국의 고유한 文字로 表記했다」면 再論의 여지가 없겠으나 여기에 구비되어야 하는 三要件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缺如되어 있을 때 문제가 일게 마련이다。그럼데 이 세要件 가운데서도 表記文字 문제가 앞다고본다。

한국문화사에서 固有文字의 발생은 너무나 日淺하다。고유문자가 있는데도 漢文으로 創作된 이조의 漢文作品을 널도로 다루는 한이 있어도、고유문자 創制 이전 시대에 있어 漢字는 그것이 일반서민계급에게까지 두루 쓰일 만큼 일반화한 表記수단은 아니였다 하더라도、그것이 華國語와 같은 表記手段이였을 바에야 글이 국문학의 테두리안에서 除去될 것까지는 없다고 본다。

韓半島의 文化는 역시 大陸文化의 영향권내에 속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大局的인 견해로 처리함이 보다 事理에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隨筆에 있어서도 漢字로 表記된 모든 수필작품을 국문학의 범주에 넣기로 前提하고 이 小考를 엮는 바이다。

2、고려시대의 隨筆

한국수필문학의 淵源은 7세기말(新羅 神武王11、AD691)에까지 소급한다。즉 薛聰이 神武王을 忠諫하기위해 寓意的으로 지었다는 「花王戒」가 있지는 않으나 文學的 香氣높은 隨筆이라 한다면、한국수필의 歷史도 1300年의 긴 과정을 가지고 있다。高麗時代는 國文學史上으로 볼 때、가히 「稗官雜記」(魚叔權) 등이 秀作에 속한다 하겠으나、대부분의 素材가 윤리 도덕적인 것 내지 人物評 등이거나、野史的인 內談이 많다。

아직 文藝的인 수필과는 거리가 있었다。이조수필의 본격적인 발전은 壬丙亂 이후 散文의 發興期에 있어 漢字 散文과 함께 발전한 것이다。특히 이조수필을 論함에 있어 女性들의 작품이 우리들의 관심을 모은다。女性의 作品을 量的으로 빈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나 男性들이 일부러 시비조로 「閨房見聞」、「詩話」、「閑談」 등 풍부한 內容을 漢文으로 表記함에 더하여 여성들의 現存作品으로는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다。

韓國文學 發興·李朝

任·丙亂後 散文

國語의 言語組織、수필에 最適

7C末薛聰의「花王戒」가 嚆矢

「稗官雜記」(魚叔權) 등이 秀作에 속한다 하겠으나、대부분의 素材가 윤리 도덕적인 것 내지 人物評 등이거나、野史的인 內談이 많다。

아직 文藝的인 수필과는 거리가 있었다。이조수필의 본격적인 발전은 壬丙亂 이후 散文의 發興期에 있어 漢字 散文과 함께 발전한 것이다。특히 이조수필을 論함에 있어 女性들의 작품이 우리들의 관심을 모은다。女性의 作品을 量的으로 빈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나 男性들이 일부러 시비조로 「閨房見聞」、「詩話」、「閑談」 등 풍부한 內容을 漢文으로 表記함에 더하여 여성들의 現存作品으로는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다。

①평론체 수필…「西浦漫筆」(金萬重)、「旬五志」(洪萬宗)

②일기체수필…「眉巖日記」(柳希春)、「癸丑日記」(意幽堂陳北溪日記)(延安金氏)

③여행체수필…「北遊歌」(金錫衡)、「日東壯遊歌」(金仁謙)、「燕行歌」(洪淳孝)

④야담체수필…「三官記」(李縡)、「於于野談」(柳夢寅)、「稗官雜記」(魚叔權)

⑤서간체수필…「癸亥天工御札」、「正祖天工御札」、「仁宣王后御札」

5、現代隨筆

한국문학사에서 수필문학은 이제까지 도외시 혹은 무시당해 왔었다。

國文學史類에서 「수필」항목이 등장하기로는 60년 3월에 간행된 張德順著 「國學通論」에서 처음으로 詳論이 부연됨 항목으로는 66년 2월에 간행을 본 金俊榮著 「國文學概論」에서 이다。

한국수필론을 논함에 있어 우리는우리대로의 여러가지역사적 여건이 다르기에 옛세이、미셀러니 등 문선구식보류방법을 적용함 것은 없다고 보며、한국수필은 맹우 광범위한 것이며 詩話·漫錄·雜記·漫筆·日記·隨筆·稗錄·雜錄등 題號로 나타난다。한국의 古典수필작품은 그주제나 소재 등 다각적인 분류를 할 수 있겠으나 필자는 다음과같은 分類를 시도해 보는 바이다。

「西浦漫筆」(金萬重)、「雙溪野錄抄」(李賢輔)、「旬五志」(洪萬宗)、「眉巖日記」(柳希春)、「癸丑日記」(意幽堂陳北溪日記)(延安金氏)、「北遊歌」(金錫衡)、「日東壯遊歌」(金仁謙)、「燕行歌」(洪淳孝)

「요사이는 세벽력山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취미로는 콧가꾸기」라고 말하는 李詩人은 「집을 좋은 題號로 나타내다。한국의 古典수필작품은 그주제나 소재 등 다각적인 분류를 할 수 있겠으나 필자는 다음과같은 分類를 시도해 보는 바이다。

①평론체 수필…「雙溪野錄抄」(李賢輔)、「西浦漫筆」(金萬重)、「旬五志」(洪萬宗)

②일기체수필…「眉巖日記」(柳希春)、「癸丑日記」(意幽堂陳北溪日記)(延安金氏)

③여행체수필…「北遊歌」(金錫衡)、「日東壯遊歌」(金仁謙)、「燕行歌」(洪淳孝)

④야담체수필…「三官記」(李縡)、「於于野談」(柳夢寅)、「稗官雜記」(魚叔權)

⑤서간체수필…「癸亥天工御札」、「正祖天工御札」、「仁宣王后御札」

5、現代隨筆

한국문학사에서 수필문학은 이제까지 도외시 혹은 무시당해 왔었다。

國文學史類에서 「수필」항목이 등장하기로는 60년 3월에 간행된 張德順著 「國學通論」에서 처음으로 詳論이 부연됨 항목으로는 66년 2월에 간행을 본 金俊榮著 「國文學概論」에서 이다。

한국고전소설사 및 현대소설사가있고 한국현대평론사가 간행됨바 없으며 더지않아 간행될 「韓國詩史」와 함께 「韓國隨筆文學史」의 출현을 촉구하는바이다。

農村 自然의 好情詩人

제5회 文化藝術賞 受賞한 辛夕汀同門

휴게실

『내겐 과분한 財産이 田園에 묻혀 40여년간 詩作과 후진양성에 몰바쳐 온 보교 朴昇仁 中央佛專 洗練성을 부르짖으며 詩 당시의 있을 수 없는 일 壞風士를 造成하는데 남은 活動을 하기도 하는 牧歌詩人이라고 칭해 주신 일과 『開線』이란 同人誌를 주재 하는 辛詩人은 『文學徒는 훌륭한 作品의 創作도 重要하지만 그보다먼저 참된 人間이 되야합니다。 人格이 되야 志操와學識을 겸비한 人間이 되야 사회 아마도 萬海스님의 사상과 精神을 후배들은 꼭 좀 더 철저히 배울 것이다。

辛詩人은 『文學徒는 훌륭한 作品의 創作도 重要하지만 그보다먼저 참된 人間이 되야합니다。 人格이 되야 志操와學識을 겸비한 人間이 되야 사회 아마도 萬海스님의 사상과 精神을 후배들은 꼭 좀 더 철저히 배울 것이다。

鄭眞鏡、金永郎、朴龍話 異河潤等과 함께 1930年代에 『詩文學』이라고 하는 文學에 사상과 精神을 후배들은 꼭 좀 더 철저히 배울 것이다。

辛詩人은 『文學徒는 훌륭한 作品의 創作도 重要하지만 그보다먼저 참된 人間이 되야합니다。 人格이 되야 志操와學識을 겸비한 人間이 되야 사회 아마도 萬海스님의 사상과 精神을 후배들은 꼭 좀 더 철저히 배울 것이다。

詩作과 후진養成 40餘年間 純粹詩運動에 기치들고

가있고 번역시집으로 「中國詩集」과 「매창시집」이 있다。

本名은 辛錫正。

◇略歷

▲1907年 金北부안출생 ▲30~33년 中央佛敎專門修了 ▲現 金北大講師 ※住所=全州市 南老松洞 一七五의二七。<舉>

農村 自然의 好情詩人

제5회 文化藝術賞 受賞한 辛夕汀同門

『아직도 한국의 고전문학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그 방법이 주로 고전문학의 문헌적 고증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한국의 고전문학이 그

탱자나무숲

方哲俊 <同門・詩人>

전투마차가 지나가는 탱자나무 숲속으로 갔난 아기의 마른 뿌리의 뻗어지고 잠시 외로운 밤 나그네는 땅 네 모퉁이의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다.

피멍빛으로 얼룩진 낯의 뒤꿈치를 내딛고 속옷까지 벌거벗은 구름을 타고오는 불꽃 탱자나무 숲 길로 시든의 그림자가 흰 옷자락으로 바위의 옆옆을 흔들며 나귀새끼를 끌고간다.

아들마 순 여자의 속눈섭 바닥가에서 잠시 외로운 밤 나그네는 흩이불을 걷치고 한참동안 거울가 나무지붕이를 돌리며 바위 돌이로 갈려가고 있다.

바벨론 잠녀처리의 물결 위에서 지렬을 치며 활짝 열리는 씨알닭 문설주를 넘어 잠시 외로운 밤 나그네는 새벽 별의 옥신을 흔들며 일렴 촛대를 꽂는다.

머느리의 불붙는 정화에 쫓기면서 어린 새벽이 벨르아트의 딸들이 춤추는 바갈들에서 시어머니의 빛을 끊는다.

야곱의 샘터에서 가죽띠를 졸려이며 엘리야의 옷자락을 펼려이며 잠시 외로운 밤 나그네는 솔로몬 청각의 광장을 열심히 쓸고있다.

탁이 옷을 벗는 속의 바닥에서 입맛을 면추고 비탈길을 올아가는 잠시 외로운 밤 나그네는 지발을 세우고 주춧돌의 충랑왕을 깔고있다.

탱자나무 숲 사이로 소낙비를 퍼붓는 밤 나그네의 가시돋힌 구렛나루를 읽으며 아브라함의 어린 말들이 일렴 촛대의 파피루스 발길을 휘휘 헤매고 있다.

전투마차의 바퀴살이 달려가는 탱자나무 숲 길로 잠든 아모의 돌벼개를 끌어안고 자부름의 안개 속으로 바람방을 휘슬며 지나간다.

大學劇의 새境地

—演映科졸업 公演「뱀」

○…本校 문리대 연극영화과 제11회 졸업…○
○…劇「뱀」이 23·24일 이틀간 (오후 3시…○
○…30분과 7시30분 하루 2회) 명동 국…○
○…립극장에서 공연되고있다. 4년간의 학…○
○…업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4개월간의…○
○…연습기간동 졸업학년 학생들 전원이심…○
○…혈을 쏟아 전력투구한 이번 公演은 그…○
○…수준에 있어서도 일반극에 비해 조금…○
○…도 손색이 없는 잘짬한 무대이다. …○

「샨·폴르트·란·이델 作品이란 題를 받고있다. 이델이 「리얼리즘」 형식의 劇이 「리얼리즘」 형식에 얽매여 틀語와 肉體의 갈등을 해소시키지못 한데 한데 반기를 든 반영의 演映과 졸업공연으로 「뱀」을 벌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선 찾아볼수 없는 시도이다.

◇演映科 卒業公演「뱀」의 한장면.

하고있는 이러한 실험극의 이해에 대학극이 선구적 연출을 한다는 중요한 뜻을 갖게한다.

「뱀」의 내용은 「옴니버스 스타일」로 창세기이후 현재에 이르는 복잡석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 고발한 것이다. 「아담」과 「이브」의 비극에서 부터 「케네디」 암살 「킹」 목사암살에 이르는 충격적 사건을 통하여 연기자와 관객이 공간을 넘어선 일체적 공감을 갖게하여 깊은 한 감명을 한다. 이러한 自覺의 효과를 강하게 하기위해 대담한 생략 축소 잘라버린다〉는 방식을 써 연기보다 육체의 변신을 전면에 내세워 「어필」 하고있다.

무엇보다도 이번연극을 「語와육체의분열작업시도」 「옴니버스」 형식의시도, 不條理劇派의 작품소화, 연기의 「리듬」 化시도등 대학극의 새로운 전진을 개척한 탁월한 작품이로기 특필 될것이다.

쇼業公演의 지도는이진순, 장한기교수이며, 스탭과 캐스트는 다음과같다.

◇스탭

▲연출=이한구, 김영길, 김현진준영 ▲무대감독, 조명감독=김영득(연영·3) ▲안무=김학자 (연영·장산) ◇캐스트 ▲아담=박상규(연영·4) ▲이브=김명희(연영·4) ▲카인=이대희 (〃·4) ▲아벨=노병현 (〃·4) ▲케네디=노병현 (문화캐스트) ▲케네디부인=김윤숙 (연영·1)=박스주자 ▲사=이용주 (〃·4) ▲〃부인=이평노 (〃·2) ▲〃 벤1·2·3·4·5=김중숙, 원종호, 박경림, 장기용, 이영아, 김윤미 ▲코러스=유명아, 장미선, 김윤미, 한성희

柳在浩

이달에 읽은 책

「또스토옙프스키」著「白痴」

<또스토옙프스키>

이 作品은 그가 18 66年에 「罪와罰」을 發表한이래 2년후에 내놓은 또하나의 巨作이다. 이 小說은 그가 구라파 여행을 하면서 가난과병에 쫓기며 完成한 作品으로 작자는 主人公 「미이시킨」 공작을 통하여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肯定的 人物을 표출하려고 하였다. 「또스토옙프스키」 前에도 많은 作家들이 아름답고 훌륭한 가슴이란 말을 어디론가 흔들어 버리지도 모를 쩍 싶은 갈증으로, 그만 쩍 외로움으로 우리를 이끈다. 지겹고, 무료하고, 어둡고, 답답한 이 독갈은 모습에서 한발짝을 달아나고 싶은 마음을 일게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이 지난 가을 「東國이」를 탄생 시키게 동기였는지도 모른다. 저 중편에 관련하고 파리로, 하노이로 도오쿄—현대판 「홍길동」을 발불케하는 「키신저」의 호화로운 여행이 아닐라도 〈나〉 이란 만화속의 主人公을 통하여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했던 나의작은 외로움으로 우리를 이끈다. 지겹고, 무료하고, 어둡고, 답답한 이 독갈은 모습에서 한발짝을 달아나고 싶은 마음을 일게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이 지난 가을 「東國이」를 탄생 시키게 동기였는지도 모른다. 저 중편에 관련하고 파리로, 하노이로 도오쿄—현대판 「홍길동」을 발불케하는 「키신저」의 호화로운 여행이 아닐라도 〈나〉 이란 만화속의 主人公을 통하여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했던 나의작은 외로움으로 우리를 이끈다. 지겹고, 무료하고, 어둡고, 답답한 이 독갈은 모습에서 한발짝을 달아나고 싶은 마음을 일게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이 지난 가을 「東國이」를 탄생 시키게 동기였는지도 모른다. 저 중편에 관련하고 파리로, 하노이로 도오쿄—현대판 「홍길동」을 발불케하는 「키신저」의 호화로운 여행이 아닐라도 〈나〉 이란 만화속의 主人公 「미이시킨」 공작을 통하여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肯定的 人物을 표출하려고 하였다. 「또스토옙프스키」 前에도 많은 作家들이 아름답고 훌륭한 가슴이란 말을 어디론가 흔들어 버리지도 모를 쩍 싶은 갈증으로, 그만 쩍